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척도의 개발

이누미야 요시유키* 한 민 이다인 이주희 김소혜
서정대학 고려대학교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이론(이누미야, 2004)은 한국인과 일본인의 심리적 차이와 같은 동일 문화권(동아시아 집단주의 문화)내의 상이한 심리적 양상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기관 모델로 제시되었으나 이러한 자기관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아직 없다(이누미야, 김윤주,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개념을 측정하는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의 개발을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척도의 양호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지지하는 증거를 얻었다. 주체성 자기, 대상성 자기 및 자율성 자기를 측정하는 각각 6문항의 척도에 대한 신뢰도 분석의 결과는 양호한 내적 일관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주성분분석의 결과는 각 척도의 1요인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 척도, 자기존중감 척도, 및 대인관계 형용사척도(KIAS-40)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른 변인과의 관계에 기초한 타당도의 충분한 근거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문화적 자기관, 주체성 자기, 대상성 자기, 자율성 자기, 문화

자기관(self-construal) 개념은 문화적 다양성을 보이는 심리적 과정과 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 틀로서 일부의 비교문화심리학자들에게 수용되어 왔다. 비교문화심리학에 있어 심리적 과정에 대한 문화의 영향을 광범위하게 매개하는 문화적 자기관의 역할은 결코 경시할 수 없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우세한 상호독립적 자기관(independent self-construal)과 집단주의 문

화권에서 우세한 상호협조적 자기관(interdependent self-construal)을 문화적 자기관의 가장 중요한 차원으로 보는 Markus와 Kitayama(1991a)의 이론은 인지, 정서, 동기의 문화차를 다루는 많은 연구들을 인도해 왔다.¹⁾

그러나 최근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 개념의 문화적 편향성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한 이론들이 제안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Cross와 Bacon 및 Morris(2000)는

* 교신저자 : 이누미야 요시유키, (482-860)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681-1 서정대학 사회복지행정과, 전화 : 031) 860-5086, E-mail : inumiya@hanmail.net

1) Markus와 Kitayama(1991a)가 제시한 두 개의 개념 구분 'independent view of self'와 'interdependent view of self'에 관해, 北山와 唐澤(1995)는 '상호독립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독립적'이라고 하는 것보다 '사람은 주변에서 분리된 존재'라는 뜻을 표현하기에 적합하고, 또 '의존'이라는 말은 보통 일본어에서는 주도성과 반대의 의미로 쓰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타자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자기 속에 받아들임으로써 주도성을 획득한다' 라는 의미의 번역어로서는 '상호협조'가 '상호의존'보다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적은 기본적으로 한국어에서도 타당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北山 등(1995)의 번역어인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하였다.

기존의 상호협조적 자기관은 집단주의적 문화에서만 타당한 집단지향적 상호협조적 자기관이며 서유럽 및 북미 지역의 일부 사람들이 갖는 상호협조적 자기관은 소속집단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형성한 친밀한 대인관계에 대한 표상을 포함하는 관계지향적 상호협조적 자기관 (relational-interdependent self-construal)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누미야(2004)는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하는 한국인과 일본인은 양쪽 다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우세하며 사회적 관계에 대한 표상이 자기개념에 포함되어 있지만, 사회적 관계에 임하는 태도에는 대조적인 차이가 있으며 한국인의 자기관은 자신을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심적 존재로 보는 주체성 자기(subjective self), 일본인의 자기관은 스스로를 사회적 영향력을 수용하는 주변적 존재로 보는 대상성 자기(objective self)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시도들에 대해 이론의 간명성을 저하시킨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표적인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 척도들을 사용한 그 동안의 연구들을 메타분석한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Markus와 Kitayama(1991a)의 이론이 예언하는 서양인과 동양인 간의 자기관 차이는 약하고 비일관적이거나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서양인은 아시아인보다 상호독립적 자기관이 강하다는 가정과 서양인은 상호협조적 자기관보다 상호독립적 자기관이 우세하다는 가정은 미약하게나마 지지되었지만, 아시아인은 서양인보다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강하다는 가정과 아시아인은 상호독립적 자기관보다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우세하다는 가정은 지지되지 않았다. 이들 자기관 척도의 심각한 타당도 문제는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 개념 자체(그중에서도 특히 상호협조적 자기관 개념)가 지나치게 단순하고 애매하기 때문에 초래된 것이다(Levine, Bresnahan, Park, Lapinski, Wittenbaum, Shearman, Lee, Chung, & Ohashi, 2003). 따라서 자기관 개념을 한 단계 세분화시켜 통용되는 범위를 좁혀 한정시키는 Cross 등(2000)의 관계지향적 상호협조적 자기관 개념이나 이누미야(2004)의 주체성-대상성 자기 개념은 이제 적절한 시도라고 여겨진다. 그런데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이론(이누미야, 2004)은 한국인과 일본인의 심리적 차이와 같은 동일 문화권내의 상이한 심리적 양상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기관 모델로 제시되었으나 이러한 자기관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아직

없다(이누미야, 김윤주,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를 측정하는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문화적 자기관

상호독립적 자기(Independent self)와 상호협조적 자기(Interdependent self)는 Markus와 Kitayama(1991a)에 의해 제안된 자기관 모델이다. 이 모델은 Triandis(1988)가 세계의 문화를 개인주의 문화권과 집단주의 문화권으로 분류한 것에서 비롯된다. Triandis의 이론이 가치관에 주목하여 문화라는 인류학적 개념을 심리학에 접목시켰다면, Markus와 Kitayama는 해당 문화 속의 구성원이 갖는 자기개념(self)에 초점을 맞추어 문화와 심리적 과정의 관계를 연구하는 틀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독립된 존재로서 인간을 바라보는 개인주의 문화의 개인은 독립적 자기관을 발달시키고 집단 내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집단주의 문화의 개인은 상호협조적 자기관을 발달시켰다는 것이다.

Markus와 Kitayama(1991a)에 따르면, 독립적 자기관 사회적 맥락과 분리된 단일하고 안정적인 자기로 정의되며, 이 성향이 강한 개인은 자신의 능력, 사고 및 감정 등의 내적 속성에 민감하며, 자기표현을 중시하고, 직접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선호한다. 반면 상호협조(의존)적 자기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유연하고 가변적인 성격을 가지며, 이 성향이 강한 개인은 사회적 지위, 역할관계 등 외적인 속성에 민감하고, 집단 내에서의 조화를 중시하며, 간접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선호한다.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 개념은 개인주의문화에 사는 사람들과 집단주의문화에 사는 사람들의 심리적 과정의 차이를 설명하는 틀로 적용되어 왔다. 예를 들어 구미사회에서 일관되게 확인되는 자기고양적 편향 (self-enhancing biases)이 일본을 위시한 동양 문화권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때로는 그 반대의 자기비판적 인식을 한다는 사례가 보고되기 시작했을 때(Markus & Kitayama, 1991a), 이러한 긍정적 환상(positive illusions)을 둘러싼 자기인식의 문화차를 해석하는 틀로서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Heine & Lehman, 1997; Markus & Kitayama, 1991a, 1991b; 遠藤, 1995; 北山, 1998).

그런데 상호독립적 자기/상호협조적 자기는 세계를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유용한 설명 방식이지만,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를 보다 세분화할 때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보통 같은 집단주의 문화권으로 생각되는 한국과 일본의 경우만 해도 심리적 과정의 여러 측면에서 많은 문화적 차이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우세한 집단주의 문화권으로 알려져 있는 한국에서는, 일본에서와는 달리, 개인주의 문화에서 보이는 자기고양 편향(또는 긍정적 환상)이 발견된다(이누미야, 김윤주, 2006).

즉, 자기특성의 지각에 관한 연구에서 미국 대학생이나 캐나다 대학생의 경우는 자기의 모든 영역에서 강한 긍정적 환상을 품고 있는 데 비해, 일본 대학생의 경우는 그와 같은 강한 긍정적 환상은 품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Markus & Kitayama, 1991b; Heine & Lehman, 1997; 伊藤, 1999; 外山, 櫻井, 2001). 다시 말하면 미국 대학생들이나 캐나다 대학생들이 능력과 개인주의문화에서 중요한 상호독립적 성향뿐만 아니라 집단주의문화에서 중요한 상호협조적 성향에 있어서도 강한 자기고양적 지각을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일본 대학생들은 집단주의문화에서 중요한 상호협조적 성향(조화성, 성실성 등)에 관해서 미약한 긍정적 환상을 갖고 있지만 신체적 특징, 능력(지적능력, 운동능력 등), 및 개인주의문화에서 중요한 상호독립적 성향(경험으로의 개방성, 사교성 등)에 있어서는 긍정적 환상이 없으며 평균적인 판단경향을 보이거나 오히려 부정적 환상(자기비하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자기고양적 지각을 가지고 있으며, 능력과 상호독립적 성향 및 상호협조적 성향의 모든 면에서 강한 긍정적 환상을 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궁호, 2002; 조궁호, 명정완, 2001; 정욱, 한규석, 2005). 이는 미국 대학생이나 캐나다 대학생이 보인 특성과 유사한 것이다.

자기특성에 관한 자기고양적-자기비하적 인지의 이상과 같은 문화차는 자기고양적-자기개선적 동기를 반영하는 행동 차원의 문화차로 귀결된다. 예를 들면 Heine, Kitayama, Lehman, Takata, Ide, Leung, & Matsumoto (2001)는 캐나다 대학생들과 일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과제(창의성검사)를 수행하도록 한 뒤 피드백을 성공 또는 실패로 조작하여 제공하였다. 그 후 난이도가 달라진

실험과제에 매달리는 시간을 측정한 결과를 보면, 캐나다 학생들은 실험과제에 성공한 조건에서의 과제 수행시간이 실패한 조건에서 보다 길었으나, 일본 학생들은 이와 반대로 실패한 조건에서의 과제 수행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캐나다 대학생들의 경우에 자신이 성공한 과제에서 자존감의 부양을 느끼고 이 자존감을 확인하고 향유하려는 동기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하는 반면, 일본 학생들의 경우는 자신이 실패한 과제에서 자괴심을 느끼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개선시키려는 동기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한국 학생들은, 일본 학생이 보인 자기개선적 행위 양상이 아니라, 캐나다 학생들과 같은 자기고양적 행위 양상을 보였다. 즉, 성공 피드백을 받은 집단이 실패 피드백을 받은 집단보다 과제에 더 오래 매달리는 경향을 보였던 것이다(정욱, 한규석, 2005). 한국 대학생들도 자신이 성공한 과제에서 자존감의 부양을 느끼고 이 자존감을 확인하고 향유하려는 동기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자기고양적 행동은 개인주의문화로 분류되는 캐나다 대학생들의 것과 유사한 패턴이다.

Heine와 Lehman(1995)은 서구인으로서 상호독립적 자기관이 우세하다고 알려진 캐나다 대학생과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우세하다고 인정되는 일본 대학생 간의 비현실적 낙관성 수준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캐나다 대학생에서는 비현실적 낙관성이 발견된 반면에, 일본 대학생에서는 비현실적 비관성(unrealistic pessimism)이 발견되었다. 한편 한국 대학생들은 비현실적 낙관성을 나타냈다(이누미야, 최일호, 윤덕환, 서동효, 한성열, 1999).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한국 대학생들은 캐나다 대학생처럼 비슷한 조건의 타인들에 비해서 부정적인 사건들은 자신에게 더 적게 일어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사건 유형별로는 특히 개인지향적 사건에 대한 비현실적 낙관성이 관계지향적인 사건에 대한 비현실적 낙관성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캐나다 대학생들이 보인 패턴과 유사한 것이다(Heine & Lehman, 1995). 이러한 결과도 역시 긍정적 환상을 설명하는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 이론의 타당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결과이다.

부정적 사건들에 대한 통제감에 관해서, 한국 대학생들의 전반적인 통제감 수준은 일본 대학생은 물론 캐나다

대학생보다도 높은 경향이 있었다(이누미야 등, 1999; Heine & Lehman, 1995). 또한 성공과 실패에 대한 통제 소재의 발달에 관한 연구를 보면, 미국에서는 아동기에서 성인기에 걸쳐 내적통제 경향이 점차 증가하는 데 비해 (Lackman, 1986; Lao, 1976; Milgram, 1971; Penk, 1969), 일본에서는 중, 고 대학생의 순으로 내적통제 경향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즉 외적통제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鎌原, 樋口, 1987). 한편 한국에서는 초, 중, 고 등학생의 순으로 내적통제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훈구, 1980). 이들은 아동기부터 청년기까지의 제한된 자료이지만 한국과 일본에서의 통제감 발달 방향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공과 실패의 귀인에 관한 미국의 연구를 개관하면 자신의 성공을 자기의 내적 요인, 특히 능력에 귀속시키는 강력한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자신의 실패는 운이나 과제의 난이도 등의 외적 요인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北山, 1998). 성공과 실패의 귀인에 있어 이러한 편파를 통해 사람들은 성공했을 때는 자기평가의 고양을 도모하고, 실패했을 때는 자기평가의 방어를 도모한다고 가정되어 있다. 미국의 연구를 개관하면 실패했을 때의 자기방어적 경향은 약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지만, 성공했을 때의 자기고양적 경향은 아주 강하고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北山, 1998). 그러나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자기고양적-자기방어적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성공을 운이나 과제의 난이도에 귀속시키고 실패는 능력이나 노력 부족에 귀인시키는 자기비판적 경향이 현저하며 편의적 실험과제를 사용한 연구의 대부분에서 능력은 성공보다도 실패의 원인으로 지각되어 있었다. 이러한 일본인의 자기비판적 경향은 공개적인 상황에서 특히 강해지지만, 익명성이 보장된 경우에서도 역시 자기비판적 경향은 나타난다(北山, 1998). 따라서 일본인의 자기비판적 경향은 겸양적 자기 제시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실제 자기지각을 반영하는 인지과정임을 의미한다. 한편 한국인의 성공과 실패에 관한 귀인 양상에 대해 알아본 김혜숙(1995)의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은 개인과제 수행상황에서 실패에 대한 능력 귀인보다 성공에 대한 능력 귀인이 더 강한 자기고양적 귀인을 나타내 보였다. 이러한 자기고양적 내적 귀인은 익명의 귀인 상황에서도보다 공개적 상황에서 더욱 뚜렷이 나

타났다. 즉, 피험자들은 자신과 같은 과제를 수행한 타인들이 듣는 상황에서도 “겸양지덕” 등의 사회규범에 의해 이러한 경향을 통제하고 절제하기보다는 더욱 자기를 긍정적으로(자기고양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이 한국인이 보이는 자기특성, 장래에 대한 지각, 통제감, 성공과 실패에 대한 귀인 등에서의 긍정적 환상은 한국문화를 일본문화와 같은 집단주의문화이며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우세한 문화라고 가정한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다(이누미야, 김운주, 2006). 미국 내지 캐나다 대학생과 일본 대학생이 보인 긍정적 환상의 양상은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으로 보였지만 한국 대학생이 보인 긍정적 환상의 양상은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 이론으로는 전혀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라 하겠다. 이는 긍정적 환상을 설명하는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 이론의 타당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결과이다. 같은 집단주의문화권 내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과정의 이러한 차이를 상호 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본 이론이 보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본 이론은 기본적으로 개인주의적인 문화와 집단주의적인 문화가 존재한다는 Triandis의 가정을 공유하며, 문화권에 따라 자기관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Markus와 Kitayama의 이론과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본 이론은 세계의 문화권을 개인/집단주의 문화로 구분한 Triandis의 분류에서 나아가 같은 개인주의 혹은 집단주의 문화권 내에서도 더욱 세분될 수 있음을 가정한다. Markus와 Kitayama(1991a)가 자기관의 유형을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의 2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반해, 본 이론은 자기관의 개념 자체를 주체성 자기, 대상성 자기, 자율성 자기의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눔으로써 그 조합에 따라 보다 다양한 자기관 유형이 파생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Markus와 Kitayama의 이론은 자기관의 유형을 문화권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함으로써, 같은 문화권 내에서 자기관이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경우(예, 한-일/미-유럽)까지는 기술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반면, 본 이론은 자기관이 세 영역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 자기관의 패턴에 주목하는 새로운 자기관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표 1. 주체성 자기와 대상성 자기의 기본적 요소

	주체성 자기	대상성 자기
자기개념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체	사회적 영향력을 수용하는 대상
목표 지향성	자신의 지향성 중시	상대의 지향성 존중
관계성 욕구	“가르치고 싶다”, “주관하고 싶다”, “선도하고 싶다”, “주도하고 싶다”, “지배하고 싶다”	“배우고 싶다”, “모시고 싶다”, “따라가고 싶다”, “보좌하고 싶다”, “의존하고 싶다”
자기평가 차원	자신의 가치와 능력 및 장래성을 높게 평가 (상대의 가치와 능력 및 장래성을 낮게 평가) “나는 당신보다 우수한 사람이다.” “나는 존경받을 만하다.”	상대의 가치와 능력 및 장래성을 높게 평가 (자신의 가치와 능력 및 장래성을 낮게 평가) “당신은 나보다 우수한 사람이다.” “당신은 존경할 만하다.”
자기인식 차원	내부기원의 준거들에 초점 소원, 이상, 비전 등을 형성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외부기원의 준거들에 초점 규범, 의무, 기대 등을 내면화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자기통제 차원	원심적(遠心的), 자기현시적 자기외부를 향한 통제성	구심적(求心的), 자기억제적 자기내부를 향한 통제성

써 동일 문화권 내의 상이한 심리적 양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는다.

본 이론은 먼저 사회적 맥락에 대해 설정한 심리적 거리감을 기준으로 자기관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하나는 사회적 맥락으로부터 분리된 존재로서 인식하는 경우이며 또 하나는 사회적 맥락과 연결된 존재로서 인식하는 경우이다. 여기서는 이하 전자를 자율성 자기(autonomous self)라고 부르기로 하지만, 전자는 Markus와 Kitayama(1991a)의 상호독립적 자기(Independent self)에 해당되며 후자는 상호협조적 자기(Interdependent self)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사회적 맥락과 연결된 존재로서 인식하는 경우도 대인관계에서 작용하는 영향력의 방향성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즉, 자신을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심적 존재로 보는 경우와 스스로를 사회적 영향력을 수용하는 주변적 존재로 보는 경우이다. 이누미야(2004)는 전자의 자기개념을 주체성 자기(subjective self), 후자의 자기개념을 대상성 자기(objective self)라고 명명하였다. 그리고 어떤 대상에 대한 주체로서의 자각(주체성 자기)에서 파생하는 심리적 활동성(또는 경향성)을 주체성, 어떤 주체에 대한 대상으로서의 자각(대상성 자기)에서 파생하는 심리적 활동성(또는 경향성)을 대상성으로 정의하였다.

자아의 자기 관련 기능에는 자기평가, 자기인식, 자기통제의 세 가지가 있는데, 주체성의 자기평가에는 자신의 가치와 능력 및 장래성을 타인보다 높게 평가하며 내부기원의 준거들(소원, 이상, 비전)에 초점을 맞춘 자기인식을 갖고, 원심적(遠心的)이며 자기현시적이고 자기외부를 향한 통제성을 갖는다. 반면에 대상성은 상대의 가치와 능력 및 장래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자기평가와 외부기원의 준거들(규범, 의무, 기대)에 초점을 맞춘 자기인식, 그리고 구심적(求心的)이며 자기억제적이고 자기내부를 향한 통제성을 갖는다(이누미야, 2004; 이누미야, 김윤주, 2006).

이러한 틀로 보면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우세한 문화권도 주체성 자기가 우세한 문화와 대상성 자기가 우세한 문화로 구별할 수가 있는데, 이누미야(2004)는 같은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하는 한국인과 일본인을 모델로 주체성-대상성 자기 이론을 개념화했으며 한국인의 자기관은 주체성 자기(subjective self), 일본인의 자기관은 대상성 자기(objective self)라고 주장했다. 대인관계에 임하는 자아의 태도는 자율성, 주체성, 대상성의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인은 특히 주체성(subjectivity)을 발달시켰으며 일본인은 주로 대상성(objectivity)을 발달시켰다는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근거가 있다.

첫째, 가장 기본적으로 특징적인 민족적 정서의 측면에

서 한국인의 주체성 우위와 일본인의 대상성 우위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한국인이 대상성보다 주체성을 발달시켰다는 것은 한국사회에서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정(情)’²⁾이 중요시된다(이규태, 1977; 최상진, 2000; 한규석, 2002)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정은 기본적으로 주체가 대상에게 느끼는 정서이며 주체가 대상에게 주는 마음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인은 주체성보다 대상성을 발달시켰는데 이것은 일본사회에서의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아마에(甘え)’³⁾가 중요시된다(土居, 1971)는 데에 나타나고 있다. 아마에는 수동적 애정회구이고 모친에 대한 자녀의 의존이 그 핵이 되어 있는 정서적 의존성인데 일본인은 성인이 된 후에도 가정의 안과 밖에서 모친에 대한 의존과 유사한 정서적인 안정을 추구한다. 한국인의 ‘정(情)’도 일본인의 ‘아마에(甘え)’도 그 발달적 기원을 밀접한 부모자식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土居, 1971; 최상진, 2000). 그런데 서로에게 강한 애착이 형성되고 공감적이고 친밀하고 자타미분화적인 관계와 관련하여 한국에서는 주체로서의 부모가 느끼는 ‘정(情)’에 중점을 두게 되었고, 일본에서는 모친에 의존하는 대상으로서의 자녀가 느끼는 ‘아마에(甘え)’에 중점을 둔 개념화가 이루어진 것이다.⁴⁾ ‘아마에(甘え)’의

- 2) 한국인은 상대를 아껴주는 마음으로서의 정을 중요시하여 한국의 문화를 정(情)의 문화라고 일컬어 왔으며, ‘모정’, ‘부정’, ‘정들다’, ‘정떨어지다’, ‘미운 정’, ‘고운 정’과 같은 정과 관련된 말이 가족관계, 부유관계, 사제관계, 직장에서의 상하관계 등 다양한 인간관계의 맥락과 상황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를 보면 정(情)이라는 개념이 지칭하는 경험이 한국인의 심리세계 속에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최상진, 2000).
- 3) 학술잡지에 발표되고 미국에서 주목을 받았던 정신의학자 도이(土居)의 ‘아마에’론이 1971년에 일본에서 “아마에의 구조(甘えの構造)”라는 단행본으로 발간되자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켰으며, ‘아마에’는 유행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青木, 1990), 오늘날까지 가장 대표적인 일본인론 중의 하나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도이의 ‘아마에’론은 일본인의 심성과 인간관계의 기본에는 ‘아마에’가 있다는 것이다. 사회집단 안에서도 ‘모자’관계의 인간관계 모델이 강하게 작용하여, 상사와의 관계도 이것을 본 따서 형성된다. 아마에의 심성은 유아적인 것이지만 많은 문화적 가치의 원동력으로서 작용해왔으며 의리도 인정도 아마에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는 것이다(青木, 1990). 그는 일본인 성격의 기본에 있는 아마에는 서양인의 자립과 대비되는 일본인의 심리에 특징적인 것이라고 지적한다.
- 4) 물론 한국인도 ‘아마에(甘え)’적인 특징(응석, 어리광)을 충분히 구비하고는 있고(李御寧, 1982), 일본인도 ‘정(情)’에 해당되는 특징(넌조오, 人情, 오모이아리, 思ひやり)을 가지고 있지

기본적 특징을 요약하면 수동적 대상애(受動的 対象愛)라고 할 수 있는데(土居, 1971), ‘정(情)’의 기본적 특징을 그와 대비하여 요약해 본다면 능동적 주체애(能動的 主體愛)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누미야, 2004; 이누미야, 김윤주, 2006).

둘째, 한국어와 일본어의 가장 큰 차이점에도 한국인의 주체성 우위와 일본인의 대상성 우위가 반영되어 있다.⁵⁾ 어순과 어휘가 상당히 유사한 한국어와 일본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본어에서는 빈번하게 사용되는 수동태를 한국어에서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어에서는 일부 동사에 수동태가 있기는 있으나 대부분의 동사는 문법적으로 수동태로 변하지 않는데, 일본어에서는 대부분의 동사가 수동태로 변할 수 있다(吳善花, 1992).⁶⁾ 또한

만, 한국에서는 아무도 ‘정(情)’을 제쳐놓고 응석이나 어리광이 가장 중요한 한국인의 특징이라고는 하지 않고, 반대로 일본에서는 ‘아마에(甘え)’를 무시하고 넌조오(人情)나 오모이아리(思ひやり)가 제일 중요한 일본인의 심성이라고는 주장하지 않는다. 많은 한국사람들이 응석이나 어리광은 ‘정(情)’에 비하면 민족적 정서로서의 대표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많은 일본 사람들도 역시 넌조오(人情)나 오모이아리(思ひやり)는 ‘아마에(甘え)’에 비하면 그 민족적 정서로서의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 5) 한국인이 주체성이 우세한 민족이고, 그와 대비하여 일본인이 대상성이 우세한 민족이라는 가정이 맞다면 그 차이는 언어의 특징, 즉 한국어와 일본어의 차이에도 드러나고 있을 것이다. 어떤 민족의 정신적 특성과 그 언어의 형성은 서로 밀접한 융합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언어는 말하자면 그 민족의 정신이 밖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민족의 언어가 민족의 정신이며, 민족의 정신이 민족의 언어이다(芝垣, 2000). 따라서 언어의 표층을 따라가다 보면, 그 표층면이 아무리 다양해져도, 문화의 심층에 다가갈 수 있으며, 거기에는 통일된 하나의 어떠한 틀이 존재한다. 그것을 ‘내적언어형식’이라고 하는데, 이 ‘내적언어형식’은 말하는 사람이 말을 표출할 때 그에게 일정한 지시(문화적 코드)를 주고, 그 표출된 말을 이해할 때 듣는 사람도 그 일정한 지시에 따라 그 말을 이해한다. 한 언어를 공유하는 민족은 무의식적으로 그 문화적 코드에 순응하여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芝垣, 2000).
- 6) 예를 들면 한국어로 ‘그 편지가 누이동생에게 읽혀졌다(その手紙を妹に讀まれた); 누이동생이 그 편지를 읽었다는 뜻)’라고 하면 어색한 표현이지만, 일본어로 그러한 내용을 수동태로 말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또한 일본어에서는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도 수동태가 될 수 있다. ‘사원들이 조퇴해 버렸다(社員たちが早退してしまった)’뿐만 아니라 ‘사원들의 조퇴를 당해버렸다(社員たちに早退されてしまった)’라는 표현도 자주 쓰인다. 또한 ‘A의 아들이 죽었다(Aの息子が死んだ)’라는 표현도 물론 쓰지만, ‘A는 아들의 죽음을 당했다(Aは息子が死なれた)’라는 표현이 더 흔히 쓰는 표현이다.

타인이 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는 뜻을 나타내는 사역수동도 자주 사용한다. 자기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타인의 요구에 의하여(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다(되다)의 의미로 사용되는 사역수동은 한국어에는 없는 표현방식이다(천수성, 1992).⁷⁾ 또한 일본 사람은 '~을 하도록 하여 주심을 받는다(させていただく)'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한국인이라면 능동태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일본인은 '하도록 하여 주심을 받겠습니다(やらせていただきます)'라고 보통 표현한다. 실제로는 그 일을 직접 시키는 사람이 없을 때도 어떤 주체를 상정하여 그가 시킨 그 일을 자기가 하도록 허락을 받았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그렇게 표현한다. 즉, 한국어에서는 주체로서의 자기에 초점이 있는데, 일본어에서는 대상으로서의 자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이는 일본에서는 대상성이라는 심성이 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수동태나 사역수동의 표현이 발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인은 일본어를 학습할 때 일본어의 수동태나 사역수동의 뉘앙스를 이해하고 구사하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이것 역시 한국인이 일본인에 비해 대상성이 덜 발달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이누미야, 2004; 이누미야, 김윤주, 2006).

셋째, 자기 관련 판단에서도 한국인이 발달시킨 주체성과 일본인이 발달시킨 대상성을 반영하는 차이가 존재한다. 즉 자기평가 차원에 관하여 주체성을 발달시킨 한국인의 자기평가는 대상성을 발달시킨 일본인의 자기평가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인관계에서 대상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자각은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한 보다 높은 평가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에 대해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주체성을 발휘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일본에서와는 달리, 자기고양 편향(또는 긍정적 환상)이 발견된다. 즉, 일본 대학생보다 한국 대학생은 자기존중감이 훨씬 높았고(조선영 등, 2004), 일본에서는 중, 고, 대학생의 순으로 내적 통제 경향이 감소하고 외적 통제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난 데 반해(鎌原 등, 1987), 한국에서는 초, 중, 고등

학생의 순으로 내적 통제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훈구, 1980). 또한 일본 대학생들은 강한 비현실적 비관성을 보인 반면, 한국 대학생들은 비현실적 낙관성 경향을 보였다(이누미야 등, 1999). 이러한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 통제감, 장래성이라는 측면에서 한일 간에 나타난 자기관련 판단의 차이는 한국인이 발달시킨 주체성과 일본인이 발달시킨 대상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한국인의 주체성 자기 및 일본인의 대상성 자기를 지탱하는 하나의 기반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누미야, 김윤주, 2006).

관련 이론들과의 비교

다음으로 본 이론과 관련된 선행이론들을 살펴봄으로써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개념의 이론적 배경을 밝히고자 한다. 이 작업을 통해 개인의 성격 이해에 있어 대인관계의 분리-연결 차원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 영향력의 방향성 차원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이는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척도의 타당화 작업과도 관련이 있다.

Homey(1945)는 대인관계의 주된 동기가 불안의 감소 내지는 불안으로부터 도피하여 안정 상태에 이르고자 하는 욕구라고 보고, 이러한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방어책으로서의 신경증적 욕구를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사람들에게 접근(moving toward people)하는 것으로서 남들에게 애정, 의존, 복종을 나타냄으로써 자기를 보호한다.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대항(moving against people)하는 것으로서, 공격, 적대, 습격을 통해 자기를 보호한다. 세 번째는 사람들을 회피(moving away from people)하는 것으로서, 고립과 철수를 통해 자기를 보호한다. Homey(1945)에 의하면, 누구나 이 세 가지 책략을 모두 사용하는데 한 반응 양식을 경직되게 사용하여 그것이 개인의 성격을 지배하게 되면 신경증이 발생한다고 한다.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이론의 관점으로 보면 이들은 각각 대상성, 주체성, 자율성의 병리적 측면을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경증적 욕구로서의 접근, 대항, 회피는 각각 대상성, 주체성, 자율성 중 한 가지 특성만을 지나치게 발달시킨 경우이며 그것도 병리적으로 왜곡되어 발휘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Fromm(1947)도 유사한 성격유형론을 제시했는데, 생산

7) 일본어의 'させられる'는 한국어로 직역하면 '시킴을 당하다'라는 뜻이다. '교수가 읽으라고 해서 이 어려운 책을 읽고 있다'라는 내용을 일본어에서는 흔히 '교수의 시킴을 당하여 이 어려운 책을 읽게 된 상태에 있다(讀まされている)'라는 식으로 표현한다.

적 지향형과 대비되는 비생산적 지향형으로서 수용지향형, 착취지향형, 저축지향형, 시장지향형의 네 가지 유형을 구분하였다. 이들 중 수용지향형(receptive orientation) 성격의 인간은 일체의 선의 원천이 외부에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려는 인간 유형이다. 착취지향형(exploitative orientation) 성격은 수용지향형과 마찬가지로 일체의 선의 원천이 외부에 있다고 느끼지만 획득하는 방법이 힘과 책략으로 빼앗아 가진다는 점에서 수용지향형과 다르다. 저축지향형(hoarding orientation) 인간은 일체의 선의 원천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중에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저축과 절약에 몰입함으로써 안정감을 찾으려는 태도를 취한다. 이들 성격유형도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이론의 관점으로 보면 역시 각각 대상성, 주체성, 자율성의 병리적 측면을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Kiesler(1996)는 대인관계 양식의 원형구조 이론에서 지배-복종 차원과 친화-냉담 차원이라는 직교하는 두 가지 차원을 설정하여 대인관계 양식을 다음과 같이 순서 있게 원형으로 배열할 수 있는 8가지 유형으로 구별하였다. 이들을 시계방향으로 제시하면 지배형(0시방향), 사교형, 친화형(3시방향), 순박형, 복종형(6시방향), 고립형, 냉담형(9시방향), 실리형의 순서가 된다. 대인관계 원형구조에서 바로 옆에 위치한 행동끼리는 유사하며, 지름의 반대 방향으로 갈수록 상반되는 행동이 된다. 이러한 8가지 대인관계 유형을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이론과 대응시키면, 실리형, 지배형, 사교형은 주체성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성격유형들이며 특히 지배형은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성향인 주체성과 가장 유사한 대인관계 양식으로 보인다. 또한 순박형, 복종형, 고립형은 대상성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성격유형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복종형은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의 영향을 수용하려 하는 특성이 두드러진 대상성과 가장 유사한 대인관계 양식으로 보인다.

이상의 고찰에 의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다양성을 보이는 심리적 과정과 사회적 행동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틀로서, 대인관계의 분리-연결 차원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의 영향력의 방향성 차원을 추가한 새로운 문화적 자기관인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개념을 측정하는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를 개발

하고자 한다.

방 법

조사 대상자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들은 척도 개발을 주목적으로 참여한 집단과 척도 타당화를 주목적으로 참여한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즉, 첫 번째 조사는 대학생 249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부분적으로 응답하거나 무선적 반응 경향성이 의심되는 22명의 자료를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227명(남자 : 112명, 여자 : 115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20.9세(남자 : 21.3세, 여자 : 20.5세)였다. 두 번째 조사는 대학생 156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남자 : 95명, 여자 : 61명), 이들의 평균연령은 22.5세(남자 : 23.3세, 여자 : 21.2세)였다.

측정도구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개념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각각 주체성, 대상성, 자율성 자기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작성하였다. 이렇게 작성한 93개의 문항에 상호독립/상호협조적 자기관 척도(高田, 大本, 清家, 1996)와 에니어그램 척도(윤운성, 2001) 및 수평/수직적 개인주의/집단주의 척도(Singelis, Triandis, Bhawuk, & Gelfand, 1995)의 문항들을 포함하여 문항진 집을 구성한 후, 4명의 연구원 각자로 하여금 이들을 그 내용에 따라 주체성, 대상성, 자율성, 및 기타로 분류하게 하였다. 그 결과, 4명의 연구원 중 2명 이상이 동일한 범주에 분류한 문항이 자율성 19문항, 주체성 23문항, 대상성 23문항으로 총 65개의 예비문항이 선택되었다. 문항수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몇 개씩의 문항을 더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80문항(주체성 25, 대상성 28, 자율성 27)으로 된 예비척도를 구성하였다. 이상과 같은 문항들을 자율성, 주체성, 대상성의 순서로 반복해서 배열하여 각 문항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의 7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

Markus와 Kitayama(1991a)의 문화적 자기관 개념에

근거하여 타카타와 오오모토 및 세이케(高田, 大本, 清家, 1996)가 제작한 20문항의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상호독립적 자기관은 ‘독단성’과 ‘개인 인식·주장’, 상호협조적 자기관은 ‘평가염려’, ‘친화·순응’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의 7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조선영 등(2005)의 연구에서 한일 양국의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 상호독립적 자기관과 상호협조적 자기관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각각 .81과 .69이었으며, 한국의 자료만을 분석한 내적 일치도는 각각 .79와 .70, 일본의 자료만을 분석한 내적 일치도는 .81과 .6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 .82과 .78로 나타났다.

자기존중감

Rosenberg(1965)의 10문항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7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자기존중감척도는 긍정적 자기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기존중감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6이었다.

대인관계 양식

Kiesler(1996)가 주장하는 대인관계 원형구조 이론에 의거한 대인관계 양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정남운(2004)에 의해 개발된 대인관계 형용사척도(KIAS-40)를 사용하였다. 대인관계 형용사척도는 각각 5문항씩의 8분원 하위척도를 가진 총 40문항의 척도이다.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의 7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친화형 .83, 순박형 .80, 복종형 .87, 독립형 .87, 냉담형 .81, 실리형 .66, 지배형 .86, 사교형 .93으로 나타났다.

절 차

설문 조사는 일곱 개의 심리학 관련 과목의 수업 장면에서 단체로 실시하였다. 그 중 다섯 개 집단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직접 조사했으며, 나머지 두 개 집단은 연구자의 의뢰를 받은 수업담당교수가 실시하였다. 대상자들은 수업참가의 일환으로 설문 조사에 참여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각 집단의 크기는 약 30명에서 70명 사이였다. 설문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대략 15분에서 20분 사이였다. 측정 변인들의 신뢰도 분석, 요인분석, 상관 분석 및 각종 기초 통계치를 구하기 위해서 SPSS 12.0을 사용하였다.

결 과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척도의 구성

각 척도에 포함되는 문항들을 선정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준거를 사용하였다. 첫째, 각 척도 내에서 문항-총점 상관인 .30 이상인 문항만을 선정하였다(준거1). 둘째, 각 척도 문항들에 대한 주성분분석의 결과 제 1 요인에 .40 이상의 부하량을 보인 문항만을 선정하였다(준거2). 셋째, 세 가지 척도에 속하는 모든 문항들에 대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에 의한 사각 회전(Direct Oblimin 방식) 요인분석의 결과에서 이론적으로 예상되는 차원에 최대이면서 동시에 절대치로 .40 이상의 구조 계수(factor structure loading)를 보이는 문항만을 선정하였다(준거3). 이상과 같은 기준을 모두 만족시킨 문항 중에서 최종적으로 각 척도마다 6문항씩 선정되었다.

위와 같은 준거에 따른 요인분석의 결과 최종적으로 얻어진 18개의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측정 문항들에 대한 구조계수행렬(structure matrix)을 표 2에 제시하였다. 전체 변량 중에서 제 1 요인(주체성 자기)은 약 25.5%를, 제 2 요인(자율성 자기)은 약 7.9%를, 제 3 요인(대상성 자기)은 약 4.4%를 설명하고 있었으며 수용할 만한 수준이었다. 이상의 결과에 의거하여 주체성 자기, 대상성 자기 및 자율성 자기를 측정하는 각각 6문항의 척도를 구성하였다. 척도 점수는 해당 문항 점수들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주체성 자기 척도 문항들에 대한 주성분분석의 결과, 고유치(eigenvalue) 1이상의 요인은 하나만 추출되었으며 6개 문항은 제 1 요인에 .63에서 .75사이의 부하량을 보였다. 제 1 요인은 전체 변량의 47.3%를 설명하고 있었다. 주체성 자기 척도의 평균치는 4.66, 표준편차는 .90이었다.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체성 자기 척도의 내적

표 2.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문항의 구조 계수 행렬

문항	M (SD)	요인 1 주체성 자기	요인 2 자율성 자기	요인 3 대상성 자기
모든 상황에 대한 리더적인 통제력을 갖는 것이 내게 중요하다.	4.56 (1.37)	.72		-.30
나는 다른 사람들을 내 뜻에 따르게 할 수 있다.	4.51 (1.17)	.61	.45	-.48
자기주장이 강하고 뛰어나기 위해 노력한다.	4.41 (1.36)	.59	.46	
나는 남들을 이끌 수 있는 힘을 갖고 싶다.	5.39 (1.35)	.56		
나는 남들에게 나의 영향을 주는 데 있어 타고난 소질이 있다.	3.96 (1.24)	.53	.39	-.33
종종 '힘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될 필요를 느낀다.	5.13 (1.38)	.53		
나 혼자서 새로운 것을 탐색하면서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4.49 (1.64)		.66	
나는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편하다.	4.56 (1.51)		.64	
나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4.56 (1.47)	.33	.57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4.97 (1.41)	.48	.51	
무엇을 하든지 나의 즐거움과 만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5.09 (1.37)		.51	
나는 어떤 사람이나 집단에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4.33 (1.36)		.45	
나는 리더라기보다 따라가는 사람이다.	4.05 (1.21)	-.55		.74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두드러질 때, 불편해진다.	3.53 (1.44)			.61
모임에서 리더가 되기보다는 보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4.19 (1.68)	-.51		.60
누군가에게 무엇을 시키는 것보다는 누가 나에게 무엇을 시켜주는 것이 편하다.	3.74 (1.67)			.60
의견이 충돌될 때, 주로 상대방의 의견을 따른다.	3.89 (1.18)			.53
나는 친구들이 결정한 일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거의 그대로 따르는 편이다.	4.19 (1.31)			.49
고 유 근		4.58	1.41	.79
총 변산 비율		25.5%	7.9%	4.4%
Cronbach's α		.77	.74	.77
요인 평균 (표준편차)		4.66 (.90)	4.67 (.96)	3.93 (1.00)

주. 구조 계수 .30 미만은 생략함.

일치도(Cronbach's α)는 .77로 나타났다. 문항-총점상관의 범위는 .47에서 .59사이였다. 문항간 상관의 범위는 .26에서 .46사이였으며 평균은 .37이었다.

대상성 자기 척도 문항들에 대한 주성분분석의 결과, 고유치(eigenvalue) 1이상의 요인은 하나만 추출되었으며 6개 문항은 제 1 요인에 .61에서 .79사이의 부하량을 보였다. 제 1 요인은 전체 변량의 47%를 설명하고 있었다. 대상성 자기 척도의 평균치는 3.93, 표준편차는 1.00이었다.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상성 자기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77로 나타났다. 문항-총점상관의 범위는 .43에서 .65사이였다. 문항간 상관의 범위는 .22에서 .58사이였으며 평균은 .36이었다.

자율성 자기 척도 문항들에 대한 주성분분석의 결과, 고유치(eigenvalue) 1이상의 요인은 하나만 추출되었으며 6개 문항은 제 1 요인에 .58에서 .72사이의 부하량을 보였다. 제 1 요인은 전체 변량의 43.2%를 설명하고 있었다. 자율성 자기 척도의 평균치는 4.67, 표준편차는 .96이었다.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율성 자기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74로 나타났다. 문항-총점상관의 범위는 .40에서 .54사이였다. 문항간 상관의 범위는 .17에서 .41사이였으며 평균은 .32였다.

각 척도의 평균치 차이분석(repeated measures) 결과 주체성 자기, 대상성 자기 및 자율성 자기 수준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F=26.13, p<.001$. 즉, 대상성

표 3.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척도와 관련 척도 간의 상관관계

	상호독립적 자기관 ^a	상호협조적 자기관 ^a	자기 존중감 ^a	친화형 ^b	순박형 ^b	복종형 ^b	고립형 ^b	냉담형 ^b	실리형 ^b	지배형 ^b	사교형 ^b
주체성 자기	.54***	.10	.39***	.24**	-.28***	-.41***	-.27**	-.07	.21**	.61***	.36***
대상성 자기	-.40***	.30***	-.44***	-.11	.45***	.63***	.46***	.10	-.21**	-.68***	-.46***
자율성 자기	.63***	-.02	.32***	-.10	-.18*	-.25**	-.03	.08	.40***	.37***	-.03

* $p < .05$, ** $p < .01$, *** $p < .001$. ^a $N = 227$, ^b $N = 156$

자기($M = 3.93$)보다 주체성 자기($M = 4.66$)와 자율성 자기($M = 4.67$)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t = -6.70$, $t = -7.11$, $p < .001$. 각 척도 간의 상관을 알아본 결과, 주체성 자기와 대상성 자기 간에는 부적 상관이 있었고, $r = -.49$, $p < .001$, 주체성 자기와 자율성 자기 간에는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r = .51$, $p < .001$, 대상성 자기와 자율성 자기 간에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r = -.28$, $p < .001$.

$r = -.40$, $p < .001$.

자율성 자기는 상호독립적 자기관 개념을 계승한 개념이기 때문에 상호독립적 자기관 척도와 강한 정적 상관이 예상된다. 조사의 결과, 자율성 자기 척도는 상호독립적 자기관 척도와 강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 = .63$, $p < .001$. 상호협조적 자기관 척도와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타당도의 다른 변인과의 관계에 기초한 근거 분석

다음으로 새롭게 구성된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척도와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 자기존중감 및 대인관계 양식과의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본 척도의 타당화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와 본 연구에 포함된 변인들 간의 이론적 관계를 예상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과의 관계

주체성 자기는 상호독립적 자기관 대신에 자기고양 편향(또는 긍정적 환상)을 설명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상호독립적 자기관 척도와는 정적 상관이 예상되지만, 관계 지향적이라기 보다는 집단지향적이고 주체성보다 대상성이 우세한 일본인의 특징이 반영되어 있는 상호협조적 자기관 척도와는 상관이 없거나 부적 상관이 예상된다. 실제로 주체성 자기 척도는 상호독립적 자기관 척도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 $r = .54$, $p < .001$, 상호협조적 자기관 척도와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대상성 자기는 일본적 상호협조적 자기관의 특징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제작된 상호협조적 자기관 척도와 정적 상관이 예상된다. 실제로 대상성 자기 척도는 상호협조적 자기 척도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r = .30$, $p < .001$. 그리고 상호독립적 자기 척도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자기존중감과의 관계

자기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평가의 결과로 정의된다(Coopersmith, 1967). 특정 영역에서의 자신감이 아닌 전반적 자존감(global self-esteem), 즉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말한다(Greenwald & Pratkanis, 1984; Rosenberg, 1965). 주체성이 갖고 있는 타인에게 영향력을 끼치려는 성향의 기반이 되는 것은 자신의 상대적 우월성에 대한 인식인데 이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체성 자기는 자기존중감과 정적 상관이 예상된다. 상대의 가치와 능력 및 장래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포함하는 대상성은 상대적으로 자신의 가치와 능력 및 장래성을 낮게 평가하게 되는 경향이 이론상 도출되기 때문 대상성 자기는 자기존중감과 부적 상관이 예상된다. 또한 자아의 자율적 기능은 자기만족, 자기충족 그리고 자유로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율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에 대한 존중감도 높아질 것이라 예상된다. 즉, 자율성 자기는 자기존중감과 정적 상관이 예상된다. 주체성, 대상성 및 자율성 자기 척도와 자기존중감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주체성 자기 척도는 자기존중감 척도와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r = .39$, $p < .001$, 대상성 자기 척도는 부적 상관을 보였고, $r = -.44$, $p < .001$, 자율성 자기 척도는 자기존중감 척도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r = .32$, $p < .001$.

대인관계 양식과의 관계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척도가 자기관 연구에 적합한 측정 도구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유사 개념 척도로서 대인관계 형용사척도의 하위척도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주체성 자기는 자신을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심적 존재로 보는 자기관이기 때문에 대인관계 형용사척도의 실리형, 지배형, 사교형과의 정적상관을 예상할 수 있다. 반대로 순박형, 복종형, 고립형과는 부적상관을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조사에서 나타난 상관관계는 실리형, 지배형, 사교형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고, $r=.21$, $r=.61$, $r=.36$, $p<.01$, $p<.001$, $p<.001$, 순박형, 복종형, 고립형과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r=-.28$, $r=-.41$, $r=-.27$, $p<.001$, $p<.001$, $p<.01$. 이러한 결과들, 특히 지배형과의 밀접한 관련성($r = .61$)은 주체성 자기 척도의 타당성을 충분히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대상성 자기는 자신을 사회적 영향력을 수용하는 주변적 존재로 보는 자기관이기 때문에 대인관계 형용사척도의 순박형, 복종형, 고립형과의 정적상관을 예상할 수 있다. 반대로 실리형, 지배형, 사교형과는 부적상관을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조사에서 나타난 상관관계는 순박형, 복종형, 고립형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고, $r=.45$, $r=.63$, $r=.46$, $p<.001$, 실리형, 지배형, 사교형과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r=-.21$, $r=-.68$, $r=-.46$, $p<.001$. 복종형과의 밀접한 관련성($r=.63$)을 위시한 이러한 결과들은 대상성 자기 척도의 타당도를 지지하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표 3에 제시된 결과를 보면 상호독립적 자기관을 개념적으로 계승한 자율성 자기 척도가 대인관계 형용사척도의 하위척도들과 갖는 상관패턴이 새로 개념화한 주체성 자기 척도의 패턴과 부분적으로는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자율성 자기 척도도 실리형, 지배형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고, $r=.40$, $r=.37$, $p<.001$, 순박형, 복종형과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r=-.18$, $r=-.25$, $p<.05$, $p<.01$. 그러나 자율성 자기의 지배형 및 복종형과의 관련성($r=.37$, $r=-.25$)은 주체성 자기의 그것($r=.61$, $r=-.41$)보다는 약하고, 주체성 자기가 친화형 및 사교형과 정적상관을 보인 데 반해, $r=.24$, $r=.36$, $p<.01$, $p<.001$, 자율성 자기는 친화형 및 사교형과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주체성 자기 척도와 자율성 자기 척도의 변별성에 관한 일정한 근거로 간주할 수 있으며, 자율성 자기와는 달리 주체성 자기가 자

신을 사회적 맥락과 연결된 존재로서 인식하는 상호협조적 자기관의 하위유형임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의 분리-연결 차원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 영향력의 방향성 차원을 추가한 자기개념인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를 측정하는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의 개발을 시도하였다. 이는 심리적 과정과 사회적 행동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예측하는 새로운 문화적 자기관의 측정을 가능케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연구 결과,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척도의 양호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지지하는 증거를 얻었다.

주체성 자기, 대상성 자기 및 자율성 자기를 측정하는 각각 6문항의 척도에 대한 신뢰도 분석의 결과도 내적 일치도(Cronbach's α)가 주체성 자기 척도 .77, 대상성 자기 척도 .77, 자율성 자기 척도 .74로 나타나 양호한 내적 일관성을 시사하고 있다. 각 척도의 문항-총점상관의 범위는 .40에서 .65사이였다.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척도에 포함된 문항들은 상호독립/상호협조적 자기관 척도(高田, 大本, 清家, 1996)와 에니어그램 척도(윤운성, 2001) 및 수평/수직적 개인주의/집단주의 척도(Singelis, Triandis, Bhawuk, & Gelfand, 1995)의 문항들과 함께 구성된 문항전집 중에서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개념에 대해 이해하는 4명의 연구원 중 2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별된 문항들이다. 이는 타당도의 검사 내용에 기초한 근거(evidence based on test content)로 간주할 수 있다.

각 척도에 대한 주성분분석의 결과는 각 척도의 1요인성을 시사하고 있었다. 이는 타당도의 내적 구조에 기초한 근거(evidence based on internal structure)로 간주할 수 있다.

타당도의 다른 변인과의 관계에 기초한 근거(evidence based on relation to other variables)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즉, 주체성 자기 척도는 상호독립적 자기관 척도와 정적 상관을 보였지만, 상호협조적 자기관 척도와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며, 자기존중감 척도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대인관계 형용사척도의 실리형, 지배형, 사교형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고, 순박

형, 복종형, 고립형과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특히 지배형과는 밀접한 관련성($r=.61$)을 나타냈다. 대상성 자기 척도는 상호협조적 자기 척도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 상호독립적 자기 척도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자기존중감 척도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대인관계 형용사척도의 순박형, 복종형, 고립형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고, 실리형, 지배형, 사교형과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특히 복종형과는 밀접한 관련성($r=.63$)을 보였다. 자율성 자기 척도는 상호독립적 자기관 척도와 강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상호협조적 자기관 척도와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며, 자기존중감 척도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자율성 자기의 지배형 및 복종형과의 관련성($r=.37$, $r=-.25$)은 주체성 자기보다는 약하고($r=.61$, $r=-.41$), 주체성 자기가 친화형 및 사교형과 정적상관을 보인 데 반해, 자율성 자기는 친화형 및 사교형과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척도의 타당도에 관한 수렴 및 판별 근거(convergent and discriminant evidence)로 간주할 수 있다.

새로 개념화한 주체성 자기 척도와 상호독립적 자기관을 개념적으로 계승한 자율성 자기 척도의 관련변인들과 갖는 상관패턴이 부분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체성 자기 척도는 자율성 자기 척도보다 일부 관련변인(지배형)과 더 밀접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율성 자기 척도도 주체성 자기 척도보다 일부 관련변인(실리형)과 더 밀접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r=.40$, $r=.21$, $p<.001$, $p<.01$, 이러한 상관패턴의 유사성은 주체성 자기가 자율성 자기(또는 상호독립적 자기관)와 구별되는 독특한 개념인지 분명치 않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따라서 주체성-자율성 자기의 변별성에 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 귀인, 통제감, 장래성 판단이라는 측면에서의 자기고양 편향(또는 긍정적 환상)을 설명하는 요인으로서 주체성 자기가 자율성 자기(또는 상호독립적 자기관) 못지않은 예언력을 갖는지 그리고 다른 변인을 예측하는 데 있어 주체성 자기와 자율성 자기의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은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척도의 타당화에 있어 필수적 작업이다.

주체성 자기와 자율성 자기 간의 상관($r=.51$)은 동일

개념임을 강하게 의심할 정도로 높지는 않았으며 문항내용의 차이도 분명해 보인다. 또한 주체성 자기가 대인관계의 (분리-)연결 차원과 관련이 있는 친화형 및 사교형과 정적상관을 보인 데 반해, 자율성 자기는 친화형 및 사교형과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주체성 자기 척도와 자율성 자기 척도의 변별성에 관한 일정한 근거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주체성 자기와 자율성 자기가 별개의 개념임을 가정하여 발달적 관점에서 고찰해본다면 자율성을 주체성을 발휘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타자와의 관계성은 유지하면서도 타자에 의존하지 않고 타자로부터의 영향력에 크게 좌우되지 않아야(즉 자율성을 확립해야)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해석은 주체성 자기와 자율성 자기의 형성과정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밝혀질 필요가 있다.

한국대학생들의 주체성-대상성 패턴은 이론적인 예상대로 대상성 자기($M=3.93$)보다 주체성 자기($M=4.66$)가 강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일반성인의 경우도 동일한 패턴을 보일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인의 주체성-대상성 패턴이 과연 주체성 자기보다 대상성 자기가 강한 것으로 나타날지 여부와 한국인은 일본인보다 주체성 자기가 강하고 반대로 일본인은 한국인보다 대상성 자기가 강한지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교차타당화 연구는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척도의 타당도에 관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척도가 개발됨으로써 이제 주체성-대상성 자기와 이론적으로 관련이 예상되는 변인들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실증적 연구가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자기평가 차원에 관하여 한국과 일본에서 실제로 주체성-대상성 자기와 자기에 관한 긍정적 환상이 관련이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거설을 검증할 수 있다. 즉,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 통제감, 장래성이라는 측면에서 한일 간에 나타난 자기관련 판단의 차이는 한국인이 발달시킨 주체성과 일본인이 발달시킨 대상성으로 설명 가능하다.

한국처럼 주체성 자기가 우세한 문화에 있어서는,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심적 존재로서의 자격을 자신에게는 물론 타자에게도 확인시키기 위해 자기 안에 자랑할

만한 속성을 찾아내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정체성 유지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정체성 자기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내부에 그러한 바람직한 속성을 발견하여 그것들을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실현함으로써 사회적 우위를 차지하도록 동기화되어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한국과 같은 정체성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은 자신의 자존감 수준을 유지하고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심리적 기제를 발달시켰을 것이다. 특히, 자신의 바람직한 속성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이다. 즉, 그러한 정보에 초점을 맞춰, 그것들에 대해 애착을 보이고 자주 생각하는 심리적 습관이 성립되어 있는 것이다. 한국인이 자기특성, 통제감, 장래에 대해 강한 긍정적 환상을 갖는 것은 자신을 독립적 존재로 보기 때문(北山, 1998)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체적 존재로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택적 초점화의 결과로서 귀인적 추론에 있어서 자기고양 편파가 초래된다고 생각된다. 즉, 자신에게 자기가 기대했던 바람직한 사건(예를 들어 성공)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여,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바람직한 내부속성(예를 들어 높은 능력)을 직접 추측하는 데 반해, 자신에게 자기가 기대 안했던 바람직하지 않은 일(예를 들어 실패)이 일어난 경우에는 그것과 모순되는 자신의 바람직한 속성(예를 들어 높은 능력)을 유지하려고 하여, 그 모순을 해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외적 요인을 추측하여 확인하려 하는 것이다. 성공했을 때의 자기고양적 귀인은 정체성 자기를 확인하는 효과가 있으며 실패했을 때의 자기방어적 귀인은 정체성 자기의 손상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정체성 자기를 확증해주는 성공에 대한 기억은 실패에 대한 기억보다 잘 보지될 것이고 이러한 자기고양적 해석과 선택적 기억은 다시 자기특성과 통제감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는 또한 장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으로 이어질 것이다(이누미야, 김윤주, 2006).

한국인의 성공과 실패의 귀인에 대한 김혜숙(1995)의 연구에서 한국 대학생은 개인과제 수행상황에서 실패에 대한 능력 귀인보다 성공에 대한 능력 귀인이 더 강한 자기고양적 귀인을 나타내 보였는데, 익명의 귀인 상황에서 보다 자신과 같은 과제를 수행한 타인들이 듣는 공개적 상황에서 더욱 자기를 긍정적으로(자기고양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정체성이라는 개념이 관계성을 전제

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체성 자기의 고양욕구는 순수하게 개인적 상황에서보다 사회적 상황에서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기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익명의 경우에는 자기고양적 과제평가를 보이지 않았으나, 공개적 평가 상황에서는 가장 뚜렷한 자기고양적 평가(즉, 성공했을 때는 과제를 보다 정확한 것으로 평가하고, 실패했을 때는 보다 덜 정확하다고 평가함)를 나타냈다. 이와 같이 자기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이 사적으로는 자기를 높이는 방식으로 귀인하지 않는데 남이 있는 상황에서는 보다 뚜렷이 자기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제시하려는 경향은, 남의 존재 하에서는 자신감의 결여를 은폐하고 과시 포장하려는 “허세”라는 방어기제(박영숙, 1990)로 보인다(김혜숙, 1995). 이는 익명성이 보장된 경우에서도 나타나는 자기비판적 경향이 공개적인 상황에서 특히 강해지는 일 본인의 겸양적 자기제시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허세”라는 기제로 방어하려는 대상은 물론 한국인의 정체성 자기이다.

한편 일본은 대상성 자기가 우세한 문화이다. 이러한 문화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그 일부로 간주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공적 인간관계를 찾아내는 것이 정체성 유지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그러한 사람들은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 안에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서 끼워 넣어 가도록 동기화되어 있을 것이다. 사회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자기 내부 속성의 평가를 유지하거나 높이는 일은 대상성 자기를 가진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고, 따라서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별로 동기화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회적 관계 안에 자기 자신을 끼워 넣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암묵적 기대, 명백한 규범, 또는 가치관 등을 간파하여, 그러한 외부기원의 준거들을 내면화한 의무적 자기와 비교하여 자신의 결점, 즉 자신이 가지고 있을 지도 모르는 바람직하지 않은 속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그것을 수정하여 이 관계 안에 자신을 끼워 넣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일본과 같은 대상성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은 자신의 바람직하지 않은 속성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이다. 즉, 특히 그러한 정보에 초점을 맞춰, 그것들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는 심리적 습관이 성립되어 있을 것이다. 일본인이 긍정적 환상이 거의 없거나 자기비판적 지

각을 하는 것은 자신을 상호협조적 존재로 보기 때문(北山, 1998)이라기보다 사회적 관계에서 영향력을 수용하는 대상적 존재로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택적 초점화의 결과로서 귀인적 추론에 있어서 자기비판 편파가 초래된다고 생각된다. 즉, 자신에게 자기가 예상했던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예를 들어 실패)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여, 거기서 일관되게 바람직하지 않은 내부 속성(예를 들어 낮은 능력)을 직접 추측하는 데 반해, 자신에게 자기가 예상 못했던 바람직한 일(예를 들어 성공)이 일어난 경우에는 그것과 모순되는 바람직한 속성(예를 들어 낮은 능력)이 추측되어, 그 모순을 해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외적 요인을 추측하여 확인하려 하는 것이다. 성공했을 때의 겸양적 귀인은 대상성 자기를 확인하는 효과가 있으며 실패했을 때의 자기비판적 귀인은 대상성 자기의 향상(또는 개선)을 지향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대상성 자기를 확증해주는 실패에 대한 기억은 성공에 대한 기억보다 잘 보존될 것이고 이러한 자기비판적 해석과 선택적 기억은 다시 자기특성과 통제감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는 또한 장애에 대한 비판적 진망으로 이어질 것이다(이누미야, 김윤주, 2006).

다음으로 자기인식 차원에 관하여 대상성을 발달시킨 일본인은 자기를 인식할 때 주로 외부기원의 준거를 사용하고, 주체성을 발달시킨 한국인은 자기를 인식할 때 주로 내부기원의 준거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연구할 수도 있다. 여기서 외부기원의 준거틀이란 사회적 규범, 의무, 기대 등을 내면화한 자기개념을 의미하고 내부기원의 준거틀이란 자신의 소원, 이상, 희망 등을 내면화한 자기개념을 뜻한다. 자기개념에 포함되는 외부기원의 준거틀은 자신이 되어야 하는 자기이고, 내부기원의 준거틀은 자신이 되고 싶은 자기이다. 대인관계에서 대상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자각은 스스로 선택한 행동 기준의 선호를 도출할 것이고, 주체로부터의 영향력을 수용하는 대상으로서의 자각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행동 기준의 존중을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인에게 특징적인 부정적 정서로 여겨져 왔던 수치(羞恥)와 한국인에게 특징적인 부정적 정서로 여겨져 왔던 한(恨)이나 화(火)를 주체성-대상성 자기의 관점에서 설명하려는 시도도 하나의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기통제 차원에서 볼 때 주체성을 발달시킨 한국인의 자기통제 양식은 보다 자기현시적이고, 대상성을 발달시킨 일본인의 자기통제 양식은 보다 억제적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이누미야, 2004; 이누미야, 김윤주, 2006), 자기현시성에 대해서도 주체성-대상성 자기와의 관계를 연구할 수도 있다. 대인관계에서 대상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체로서의 자각이 강하면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 사정이나 심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으나, 대상으로서의 자각이 강하면 상대방의 지향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자기표현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체성이 강한 사람의 주된 통제 대상은 상대방이지만 대상성이 강한 사람의 주된 통제 대상은 자기내부의 요소들일 것이다. 아울러 주체성-대상성 자기와 사적이고 심정적인 인간관계를 지향하는 관계성 및 공적이고 직업적인 인간관계를 지향하는 집단주의성향의 관계도 연구할 만한 과제이고, 주체성-대상성 자기의 형성과정이나 심리-사회적 기반에 대해서도 앞으로 규명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혜숙 (1995). 귀인상황의 공개성과 (집단)자아존중이 자기고양 귀인과 집단고양 귀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9(1), 45-63.
- 박영숙 (1990). 자아방어 진단검사 표준화 예비연구. 이화 의대지, 13(3), 233-242.
- 윤운성 (2001). 에니어그램 성격유형검사의 개발과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15(3), 131-161.
- 이규태 (1977). 한국인의 의식구조. 서울 : 문리사.
- 이누미야 요시유키 (2004). 한일 비교 성격론. 인본연구, 11, 101-124.
- 이누미야 요시유키, 김윤주 (2006). 긍정적 환상의 한일 비교 : 주체성 자기와 대상성 자기에 의한 설명.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20(4), 19-34.
- 이누미야 요시유키, 최일호, 윤덕환, 서동효, 한성열 (1999). 비현실적 낙관성(unrealistic optimism) 경향에 있어서의 비교 문화 연구 :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3(1), 183-201.
- 이훈구 (1980). 내외통제성 : 한국 초, 중, 고등학생의 내

- 외통제 경향성, 학생생활연구, 제5집(충북대학), 41-51.
- 정욱, 한규석 (2005). 자기고양 현상에 대한 조절변인으로 서 자존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199-216.
- 조근호 (2002). 문화성향과 허구적 독특성 지각 경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1), 91-111.
- 조근호, 명정완 (2001). 문화성향과 자의식의 유형.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11-139.
- 조선영, 이누미야 요시유키, 김재신, 최일호 (2005). 한국과 일본에서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이 대인 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이존중감과 공격자기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4), 49-60.
- 천수성 (1992). 일본어뱅크 日本語 중급. 서울: 일본어뱅크.
- 최상진 (2000). 한국인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출판부.
- 한규석 (2002).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 青木保(아오키 다모츠) (1990). 日本文化論의 變容: 戦後日本の文化とアイデンティティー. 東京: 中央公論社.
- 李御寧 (1982). 「縮み」志向の日本人. 東京: 學生社.
- 伊藤忠弘(이토 타다히로) (1999). 社會的比較における自己高揚傾向: 平均以上効果の検討. 心理學研究, 70(5), 367-374.
- 遠藤由美(엔도 유미) (1995). 精神的健康の指標としての自己をめぐる議論. 社會心理學研究, 11(2), 134-144.
- 吳善花 (1992). 新スカートの風: 日韓あわせ鏡の世界. 東京: 三交社.
- 鎌原雅彦(감바라 마사히코), 樋口一辰(히구치 가즈토키) (1987). Locus of Control의 年齢的變化に関する研究. 教育心理學研究, 35(2), 177-183.
- 北山 忍(기타야마 시노부) (1998). 自己と感情: 文化心理學による問いかけ. 共立出版株式會社.
- 北山 忍, 唐澤眞弓(가라사와 마유미) (1995). 自己: 文化心理學的視座. 實驗社會心理學研究, 35, 133-163.
- 芝垣哲夫(시마가키 테즈오) (2000). 日本人の深層文化: 相對的比較論. 東京: 旺史社.
- 高田利武(다카타 토시타케)-大本美千恵(오오모토 미치에) · 清家美紀(세이케 미키) (1996). 相互獨立的的相互協調的自己觀尺度 (改訂版) の作成. 奈良大學紀要, 24, 157-173.
- 土居健郎(도이 타케오) (1971). 甘えの構造. 東京: 弘文堂.
- 外山美樹(토야마 미키), 櫻井茂男(사쿠라이 시게오) (2001). 日本人のポジティブ・イリュージョン現象. 心理學研究, 72(4), 329-335.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gn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 497-529.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Freeman.
- Cross, S. E., Bacon, P. L., & Morris, M. L. (2000). The relational-interdependent self-construal and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4), 791-808.
- Fromm, E. (1947). *Man for himself: An inquiry into the psychology of ethics*. N. Y.: Holt, Rinehart & Winston.
- Greenwald, A. G., & Pratkanis, A. R. (1984). The Self. In R. S. Weyer & T. K. Srull(Eds.), *Handbook of Social Cognition(Vol3, pp.129-178)*, Hillsdale, NJ: arlbaum.
- Guisinger, S., & Blatt. S. J. (1994). Individuality and realtions: Evolution of a fundamental dialectic. *American Psychologist*, 49, 104-111.
- Heine, S. J., Kitayama, S., Lehman, D. R., Takata, T., Ide, E., Leung, C., & Matsumoto, H. (2001). Divergent consequences of success and failure in Japan and North America. An investigation of self-improving motivations and malleable selv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 599-615.
- Heine, S. J., & Lehman, D. R. (1995). Cultural variation in unrealistic optimism: Does the west feel more invulnerable than the ea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595-607.
- Heine, S. J., & Lehman, D. R. (1997). The cultural construction of self-enhancement: An examination of group-serving biases. *Journal of Personality &*

- Social Psychology*, 72(6), 1268-1283.
- Horney, K. (1945). *Our inner conflicts: A constructive theory of neurosis*. New York: Norton.
- Kiesler, D. J. (1996). *Contemporary interpersonal theory and research: Personality,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Lackman, M. E. (1986). Locus of control in aging research: a case for multidimensional and domain-specific assessment. *Journal of Psychology and Aging*, 1, 34-40.
- Lao, R. C. (1976). Is internal-external control an age-related variable? *Journal of Psychology*, 92, 3-7.
- Levine, T. R., Bresnahan, M. J., Park, H. S., Lapinski, M. K., Wittenbaum, G. M., Shearman, S. M., Lee, S. Y., Chung, & D., Ohashi, R. (2003). Self-Construct Scales Lack Validity.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9(2), 210-252.
- Markus, H., & Kitayama, S. (1991a). Culture and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arkus, H., & Kitayama, S. (1991b). Cultural variation in the self-concept. In J. Strauss & G. R. Goethals (Eds.), *The self: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New York: Springer-Verlag.
- Milgram, N. A. (1971). Locus of control in negro and white children at four age level. *Psychological Reports*, 29, 459-465.
- Penk, W. (1969). Age changes and correlates of internal-external control scale. *Psychological Reports*, 25, 856.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hin, K. R. (1992). *Correlates of Depressive Symptomatology in Korean American Women in New York City*. Columbia University.
- Singelis, T. M., Triandis, H. C., Bhawuk, D. P. S., & Gelfand, M. J. (1995).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 theoretical and measurement refinement. *Cross-cultural research*, 29, 240-275.
- Taylor, S. E., & Brown, J. D. (1988). Illusion and well-being: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mental health. *Psychological Bulletin*, 103, 193-210.
- Triandis, H. C., (1988), Collectivism vs. individualism: A reconceptualization of a basic concept in cross-cultural social psychology, in G. K. Verma and C. Bagley (Eds.), *Cross-cultural Studies of Personality, Attitudes and Cognition*(pp.60-95). London: Macmillan.

